

세대 문화의 힘과 참여 정치의 전망

이동연

2002년 12월 14일, 광화문 밤하늘을 흰히 밝힌 10만 개의 촛불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이, 미선이의 넋을 기리는 혼불이었다. 꽃다운 여중생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미군들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평화적 행동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미 대사관 항의 방문, 천주교사제단의 단식 농성, 대중연예인들의 항의 삭발, 그리고 시민들의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추운 날씨를 이겨내며 세종로 공간을 전유하고 있었다. 권위와 억압의 상징이었던 세종로는 평화와 평등을 원하는 시민들의 촛불 행렬로 뒤덮였다.

우리는 지난 여름 전국을 붉게 물들게 했던 축제의 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거리 응원의 진원지 광화문 일대는 한국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수십만 명의 자발적인 시민들로 가득했고, 역사상 처음 경험했던 거리의 카니발은 시민의 힘, 광장의 힘을 새삼 확인했던 시간이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애써 외면하려 했던 사람들은 월드컵이라는 전지구적 축제가 끝나면 광화문은 다시 권위의 공간, 차들의 공간으로 되돌아 갈 것이고, 시민들은 다시 광장에 나올 일 없이 일상의 이기심에 빠져 침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이 회귀하듯' 시민들은 미군들의 무죄 판결에 분노하고 소파의 전면 개정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다.

광장이 사건 속에서 문화와 정치의 공간으로 교차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주체들의 탄생을 선언했고, 이들의 힘은 다시 현실 정치의 장에 결집되어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세대의 자유로운 감수성이 경직된 기성 정치에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극적인 반전과 서스펜스로 막을 내린 '대선'이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며 느낀 개인적인 소감이다). 국민경선과 후보단일화, 그리고 지지철회 사태에서 극적인 승리의 전선을 가로질러 간 노무현의 정치적 오디세이는 놀랍게도 관행과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감수성의 자원을 내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노무현의 승리가 젊은 세대의 승리, 인터넷의 승리, 소신과 원칙의 승리로 설명한다. 또한 지역주의와 보스정치의 몰락, 관권, 금권정치의 소멸을 앞당겨 새로운 정치 개혁의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노무현 승리의 표면적인 요인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사회적 에너지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승리의 요인으로 세대 정치와 인터넷 정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노무현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20~30대가 과연 동일한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비의 황태자'요, '혁명의 금치산자'였던 청년 세대들이 돌연 정치적 아나키스트로 돌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인터넷의 테크놀로지가 네티즌의 유목적 인 행동을 곧바로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일반화된 요인들이 노무현 승리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386세대가 주를 이룬 '노사모'의 정치개혁 의지와, 변화와 속도로 무장한 디지털 N세대들이 연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세대적 공감대 때문이 아니라, 현실정치를 산화시키려는 감수성의 정치 때문이다.

정치적 성향이 같다고 볼 수 없는 20~30대가 노무현의 문화전략 안으로 결집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강력한 문화적 동화력 때문이다. 물론 노무현 식 문화 전략의 정치성은 정치적 개혁의 열망을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386세대와 N세대들의 정치적 이질성은 오히려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 정치적 선택의 폭을 넓혔다. 정치가 문화에 의해 망각되기보다는 문화를 통해 폭발한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386세대들도 사실 문화적 향수가 강한 세대이며, 이른바 '서태지 세대'라 할

만한 20대 후반의 IT세대들은 90년대 소비문화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주체들이다. 그리고 본격 디지털 문화에 접속된 20대 초반의 N세대는 자유로운 문화적 감각을 향유하는 매니아 세대이다. 386세대가 문화적 향수를 통해 정치적 폭력을 치유받고 싶어했다면, N세대들은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통해 문화적 자유를 확장하고 싶어했다. 결국 문화의 힘이 정치적 선택의 유연함의 원천이 됐던 셈이다.

문화 세대들은 서태지와 월드컵과 촛불시위를 거쳐 마침내 동시대 삶의 가치관을 전복시켜 버릴지도 모르는 정치적 사건을 일으켰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20~30대의 연대는 정치의 연대가 아닌 문화의 연대이며, 문화적 힘이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다. 68년 프랑스 혁명이 청년 세대의 문화적 열정에서 비롯됐듯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청년 세대들의 의지는 새로운 문화적 감각을 열망하고 있었던 셈이다. 세대의 힘은 문화의 힘이다.

감수성은 몸에서 배어 나오는 열정의 에너지이고 감각의 자율성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측 가능할 법했던 변질의 꿈수들이 여지없이 무력화한 것은 낡은 몸의 관습들을 바꾸려는 감성의 힘, 욕망의 에너지가 젊은 세대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의 승리는 정확하게는 청년 세대가 아니라 감수성의 승리이며, 인터넷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를 관통하는 주체의 자율성의 승리이다. 문화적 감수성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힘이다. 문화가 정치에 종속되고, 감수성이 이성적 논리에 의해 미신으로 배제되는 사회는 이제 우리가 탈주해야 할 근대적인 영토이다. 대선에서의 극적인 반전에서 발견되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은 바로 주체의 문화적 감수성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붉은악마의 '더러운' 열정에서 국민(시민)주권과 평등을 외치는 광화문 촛불시위로, 다시 정치 개혁의 의지로 결집됐던 지난 한 해 우리 사회의 격랑 속에는 결국 '공간과 주체의 새로운 구성'을 요구하는 사건들의 계열이 존재하고 있던 셈이다. 주체는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가, 공간은 주체들의 행위를 통해 어떻게 배치되기를 원하는가. 주체의 행동과 공간 배치의 정치학은 우리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화정치학의 실천적인 화두가 아닐까.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

세대론 논쟁의 의미

2002년 16대 대선이 노무현의 극적인 승리로 막을 내린 후 미디어에서는 앞을 다 튀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특집을 게재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선거의 특징을 젊은 세대들의 반란으로 보면서, 과거 단 한번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조합된 적이 없던 소위 '2030세대들'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이들 영파위의 비밀을 해독하고자 했다. 과거 대선이나 총선이 끝나면 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모델로 애용됐던 '보혁대결'이나 '지역갈등'이란 용어는 이번 선거에서는 '세대교체'라는 강력한 자장 안으로 용해되어 버린 듯하다.

이른바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권 시대를 연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세대교체론'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세대교체론에 대한 해석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한 진단에는 여전히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 언론이 주도한 세대론 논쟁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보여줬는데, 하나는 세대론 혹은 세대교체론을 주류론이나 주류교체론으로 변형시켜 주류 기성세대들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2030세대들'의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단순한 세대교체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이면서도 동시에 낡은 패러다임에 대한 청산을 기획하고자 한다.

『조선일보』는 대선이 끝난 후 발빠르게 신년 기획으로 새로운 세대의 에너지를 집중 조명하는 기획기사들을 연재하면서, 세대교체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성 세대에 기죽지 말라"는 예의 격문과 함께 대선에서 주눅들어 있을 법한 '주류 기성세대'의 방어적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¹ 『중앙일보』는 2002년 12월 21일 「2030 영파위」라는 기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가 곧바로 「소외당한 5060세대」라는 기획 특집으로 인터넷 정치에서 소외된 장년 세대들의 한풀이를 대변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보수 논객들을 대거 동원해 대선에서 엠티인 세대 혁명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자 한다.² 주류 기성보수 세대의 '심리적 저항선'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언이다. 송복 교수는 1월 22일 <제26회 전국최고 경영자

연찬회) 기초연설에서 젊은 세대들을 “사회적 철부지” “앞으로도 설쳐댈 대형사고 칠 공범들”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 결과의 큰 변수로 등장했던 인터넷 여론정치를 “모든 살인기구가 동원되는 조폭 시대의 언어 폭력”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³ 송복 교수처럼 보수 논객의 원초적인 ‘악다구니’가 아니긴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씨의 진단도 대선 바람몰이의 주역이었던 386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무의식적인’ 오독을 통해 개혁세대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1월 9일 『동아일보』 칼럼에서 노사모 그룹으로 대표되는 386세대들은 70년대 민주화 세대의 아픔과 90년대 후배들의 취업난도 모른 채 “곱게 자라 패배와 좌절을 모르는 시대의 행운아”이자, “승리의 세대”라고 말했다.⁴ 송복 교수의 ‘철부지론’이 아마도 인터넷을 즐기는 20대들을 겨냥했다면, 이시형 씨의 ‘승리론’은 386세대를 겨냥한 발언이어서 서로 다른 세대를 비판한 듯해 보이고, 세대론을 진단하는 방식이 대단히 상이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큰 사고를 친 ‘2030세대’는 불안한 세대여서 심히 걱정된다는 동일한 논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대론을 부각시켜 우리 사회의 지배적 낡은 패러다임을 혁신하려는 시도들은 세대론을 주류교체론의 화두로 전진배치한다. 예컨대 “2030대 5060” “빈농의 고졸 출신 대 명문가의 서울대 출신” “인터넷미디어 대 보수언론” “탈냉전 세대 대 냉전 세대” “문자 대 영상” “아날로그 대 디지털” 등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우리 사회 주류를 상징하는 “5060, 서울대, 조중동, 냉전, 강남”이란 지배적인 아이콘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가장 적극적인 해체론을 주장하고 있고, 『한겨레 21』은 「감성 세대의 문화혁명」이란 기획 특집을 통해

1 『조선일보』는 신년기획으로 「한국사회의 파워이동」을 연재했다. “떠오르는 새 주역들: ‘산업화 세대’의 자리를 ‘디지털 세대’가 채운다” “무너지는 권위주의: ‘낡은 시스템’ 곳곳서 흔들린다” “산업화 세대 ‘우리도 할 말 있다’”라는 주제로 기획 기사를 다뤘는데 결론 부분에서 산업화 세대, 냉전 세대들의 명분을 옹호하고 있다.

2 『동아일보』는 2002년 12월 25일자 남시욱 씨의 칼럼을 통해 2030세대의 무분별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에 우려를 보내는 글을 실었다.

3 『오마이뉴스』, 2003년 1월 23일자.

4 이시형, 「주역으로 떠오른 386세대들에게」, 『동아일보』, 2003년 1월 7일자.

월드컵, 촛불시위, 대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의 분출에서 비롯된 문화혁명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문화일보』 역시 「노무현 승리의 주역 영파워」라는 특집 기획을 통해 욕망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하는 ‘노마드 nomad’ 적 세대의 문화적 특성들을 거론했고, 『경향신문』은 2030세대의 가치관, 소비, 직장, 결혼 등의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대선을 기점으로 제기된 언론들의 세대론은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겠지만, 90년대 초반 ‘신세대 문화론’ 논쟁 이후 다시 한번 세대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놓고 있다. 사실 언론의 세대론은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이나, 담론적 포장의 위험성을 배제한다면, 이미 세대 문화의 징후들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쟁점이 됐던 토픽들을 정리하고 주목한 것에 불과하다. 386세대의 참여민주주의, 인터넷 디지털 세대의 자유로운 문화 감성, 이른바 ‘보보스’로 불리는 청년 소비족들, 그리고 월드컵 이후 거리의 카니발리즘을 즐기는 광장 세대들 등의 이야기들은 2000년 4·13 총선 이후 세대 정치와 문화 정치의 본격적인 등장을 선언하는 사건들을 내포하고 있다. 언론들은 다만 대선의 결과가 지역 정치에 대한 세대 정치의 승리로 나타나자, 지난 몇 년 동안 제기됐던 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루려 했던 것이고, 이른바 언론권력의 장과 아비투스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가치 평가가 매겨진 듯하다.

따라서 대선 이후 세대 문화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이 아닌가 싶다. 첫째는 지난 90년대 초반 신세대론 이후 이른바 청년 세대들의 주체 형성이 우리 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맞아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위 ‘2030세대’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대 문화가 대선 이후 한국 사회에 어떤 운동적인 효과를 생산했는가이다.

주체형성의 계열과 과정들

90년대 이후 세대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에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사건은 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고

두 번째 사건은 97년을 기점으로 PC, PCS, MP3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 문화의 대중화이고, 세 번째 사건은 2002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이후 청(소)년 세대들이 보여준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이다. 이런 사건의 연대기적 계열은 청년 세대 내부의 정체성의 분할선과 거의 일치하는데, 가령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해당되는 서태지 세대를 통상 정보통신업계의 실무를 주도하는 IT세대라 할 수 있다면,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디지털 문화의 생산과 소비 한가운데 서 있는 세대를 N세대라 할 수 있고, 동계올림픽의 온라인 반미 시위와 월드컵의 거리 반란을 주도한 이른바 10대들을 '광장세대'⁵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의 계열은 신세대 담론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건의 계열은 동시대 청년 세대들의 문화적 토대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세 번째 사건의 계열은 세대 문화의 현실적 힘들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시작된 당시의 신세대 논쟁은 엄격히 말하자면 본격적인 세대 논쟁으로서는 부족한 두 가지 내용상의 공백이 있었다. 하나는 신세대론이 변혁 이념의 위기와 현실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사회 현상을 지적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론을 탈이데올로기화할 수 있는 물질 토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는 현실 사회주의의 거대 변혁 이념이 효력을 상실하고, 소비자본주의 사회로의 본격 진입을 알리는 실증적인 사건을 신세대의 등장으로 지목하면서, 신세대에 대한 정의를 탈정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일탈 세대로 규정하는 듯하다. 신세대는 그런 점에서 오렌지족과 특정 부유층 자녀들로 환원된다든지, 서태지의 파격적인 스타일을 추종하는 일탈 아이들로 단정되어 버린다. 신세대 담론은 그래서 정치적 해방의 좌절을 경험한 세대들의 한풀이 내지는 문화적 아나키즘으로의 급격한 변신을 표상한다.⁶ 신세대 하면 통상 개성이 강하고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소비력이 왕성한 세대로 명명되지만, 90년대 초반부터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5 언론에서는 월드컵 이후의 세대들을 일컬어 R세대나 W세대로 명명했는데, 개인적으로 광장세대로 부르고 싶다. 물론 광장세대는 10대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도적 참여나 열정 면에서 10대들을 특정하게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문화적인 토대가 안정되게 보장됐다고 보긴 어렵다. 홍대 앞과 신촌 지역에서 형성된 '인디문화'는 96년을 기점으로 붐이 형성됐고, 실험적 형태의 '독립예술제'는 98년에 시작됐다. 이른바 N세대의 출현 이전에 한동안 신세대를 무의미한 기표로 명명하려 했던 X세대니, Z세대니 하는 '유령' 언어들만 이들의 물적 토대, 문화적 토대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 통상적으로 사용했던 신세대라는 담론이 세대 문화 안에서 이데올로기적인 기표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질적인 단절이 생겨난 것은 90년대 후반 디지털 문화의 급격한 확산을 통해서였다. 휴대폰, 인터넷, 온라인게임, 온라인 커뮤니티, MP3,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불과 3~4년 사이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집중 투여됐고, 이른바 N세대의 등장도 디지털 소비자만 아니라, '생산-소비자 prosumer'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는 물적 문화적 토대를 갖추기 시작했다.⁷ 온라인 사용과 디지털 기술 장비들의 기술 혁신으로 N세대들은 네티즌, 게이머, 이모티콘, 유저, 아바타 같은 온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정체성을 실험하고자 했고, 뚜렷한 세대적 구별짓기를 시도하고자 했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세대적 구별짓기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구별짓기가 아니라 감정의 물적 토대 차원에서의 구별짓기라는 점에서 이전의 신세대와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한다.

2002년 동계올림픽과 한일 월드컵, 그리고 촛불시위는 한동안 실험의 대상이었던 N세대들의 사이버 상에서의 현실개입 효과를 적절하게 시험한 무대였고, 이 사건들을 기점으로 N세대는 광장세대로의 이행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통상 폐쇄적

6 대표적인 저서가 『신세대, 내 멋대로 해라』(현실문화연구 1994)이다. 이 책의 공동 저자들인 미메시스 그룹은 20대 운동권 학생들로 구성됐다.

7 휴대폰 업체를 양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2002년 10월 현재 각각 1천7백만 명과 1천30만 명의 이용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 중 청소년 이용자 수가 1백25만 명과 80만 명에 이른다. 2002년 대비 매출액도 SK텔레콤이 6조 원을 넘어섰고, KT는 4조 원을 넘어섰다. 작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계정 아이디가 이미 1천만 개를 넘었고, 10대와 20대 중심의 커뮤니티 이용자가 하루에 백만 명이 넘고 연간 매출액이 1천억 대에 이른다. 온라인 게임업체인 NS소프트의 경우 '리니지'라는 게임으로만 연간 4백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각종 게임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하루에 4백만 명을 육박한다.

이고 개인주의적인 N세대와 개방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광장세대는 외형적으로는 서로 이질적인 주체들처럼 보여 이 둘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온라인의 힘이 오프라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문화적 연대감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갇혀 있던 N세대들은 월드컵, 촛불시위, 대선이란 사건을 통해 문화적 연대감을 확인하고 현실 참여의 장으로 이행한 것이다. 다만 오프라인에서의 문화적 연대의 힘은 사회 변화의 상식적 의지에 기초한 다른 세대들과의 연대를 가능케 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운동의 한국적 특수성을 제대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결정주의적 성향이 강한 N세대의 정체성과는 거리를 둔다. 광장세대는 그런 점에서 N세대가 지닌 디지털의 물적 문화적 토대들을 인수하는 동시에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쾌락과 이해관계, 개인과 공동체 사이를 가로질러 가려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세대 문화에 대한 이런 지도그리기가 진화론이나 단계론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대 문화가 우리 사회의 낡은 패러다임을 혁신시킬 주체로, 새로운 감성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견인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본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런 세대 문화의 힘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주어졌다고 해석하고 싶다. 말하자면 본격적인 세대 논쟁, 세대적 실천은 이제부터인 셈이다.

‘2030’ 세대의 구별짓기와 연대

세대 문화 안에는 언제나 이미 하나로 규정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구별짓기가 이뤄진다.⁸ 세대 문화는 통상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의 구별짓기를 보편화시키면서 청년 세대를 무의식적으로 동질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같은 청년 세대라 할 수 있는 10대(구체적으로는 1318세대)와 20대는 더 이상 동질적이지 않으며, 10대 안에서도 13세대와 18세대 사이에 뚜렷한 구별짓기가 이뤄진다. 청년 세대는 계급 지역 성 성차 가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구별짓기를 수행하며, 구별짓기

8 줄고, 「세대문화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3, 277~280쪽.

의 방식도 경제적인 구별짓기만이 아니라 언어 스타일 취향에 따른 문화적 구별짓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청소년 하위문화에서는 지역과 계급에 따라 구별짓기가 심하게 드러나는데, 그 방식은 경제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스타일 언어 분위기 등에서 나온다.⁹ 따라서 세대 문화의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규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질화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20대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구별짓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2030세대'가 하나의 동질적인 그룹으로 묶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2030세대'가 동질적인 그룹으로 해석된 데에는 특별한 맥락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대선 결과에 강한 영향을 준 유권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성 보수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발 심리가 형성되어 '2030세대'의 투표 성향이 같은 지향점을 가졌고, '대선 충격'이 단순히 대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가해졌던 세대 충격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점이 특수하게 고려될 만하다. 더불어 대선 충격은 386세대들이 보여준 정치 개혁의 의지와 297세대들의 문화적 감수성이 동시에 폭발한, 말하자면 문화와 정치가 연대한 사태로 독해할 만한 점도 있다.

어쨌든 정치적 성향이 강한 386세대와 문화적 감수성이 강한 297세대의 '합종연횡'이 사회 각 분야의 기성 세대를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대선 충격을 낳았고, 이른바 '5060세대'를 교체할 세력으로 '2030세대'가 한 배에 탄 것이라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030세대'를 통한 대선의 정체성이 아니라 대선을 통한 '2030세대'의 정체성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선을 통해서 본 2030세대의 정체성은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386세대로 대변되는 30대는 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던 주체들이고 싫든 좋든 반체 반파쇼 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외상을 안고 있는 주체들이다. 이들은 90년대에 들어와 혁명적 좌절감을 경험한 세대로서 운동과 현실 사이에서 심한 부침 현상을 보인 세대들이다. 이들은 또한 심리적 거리감, 혹은 감정의 깊은 낙차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빠른 결단을 강요받기도 했고, 그 결과 사

9 줄고, 「청소년 하위문화의 공간과 스타일」, 앞의 책, 316~329쪽.

회 진보의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단계적인 사회 변화의 계기들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됐다. 예컨대 노사모 같은 뜨거운 열정은 변혁에 대한 좌절된 희망을 현실 밖으로 소환하기 위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노무현의 대선 승리는 차선의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감동적일 수밖에 없고 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궁극적인 혁명을 끊임없이 유보한 채 부분적인 개혁을 통해 제한적인 '소원 충족'을 이룬다.

반면 297세대로 대변되는 20대는 80년대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동요가 심한 세대에 속한다. 이들은 수능 세대로서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정치적으로는 안정된 대학 생활을 했지만, 졸업과 함께 온 IMF사태로 학교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일종의 사회적 유예 기간을 겪었다. 노동과 생산과정에서 보면 구조적인 실업 상태와 IT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을 가장 심하게 겪었지만, 소비의 과정으로 보면 역으로 명품 선호와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로 인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반대 현상을 보인다.¹⁰ 문화적으로 보면 서태지 세대인 이들은 가장 문화적 소비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이지만, 속도와 이미지 변환이 강한 10대들에게서 강력한 세대 교체의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의형상으로 보면 386세대는 정치적 세대이자 불행한 세대이고, 297세대는 문화적 세대이자 행복한 세대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가 함께 연대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질적으로 보였던 '2030세대' 안에 서로 가족적 유사성이 있고, 문화와 정치 혹은 욕망과 이데올로기가 서로 간에 잠재된 결절점을 주고받지 않았나 싶다. 이 말은 386세대의 정치적 의식 안에 억압된 문화적 무의식이 존재하고, 297세대

10 『경향신문』이 최근에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30세대 절반 이상은 자신의 수입보다 과도한 지출을 하고 충동구매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또 25퍼센트 이상은 한 달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백만 원을 넘고,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신용불량 등의 곤란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명 중 1명 꼴로 월급 등 자신의 월소득이 생활에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월 평균 1백만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3년 1월 19일자.

의 문화적 행동 안에 잠재된 정치적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말일 것이다. 386세대에게 문화란 어찌 보면 정치적 의식 때문에 유예된 자신의 욕망을 무의식의 저장소에서 끄집어내려는 향수의 산물일 것이며, 297세대에게 정치란 문화적 행동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폭발 가능한 뇌관일 것이다. 문화와 정치가 연대한 사건,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2030세대'의 '차이 내 연대'의 비밀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세대의 참여 정치의 가능성

불평등한 소파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평화적인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출발점이 됐던 것은 아마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벌어졌던 '오노 사건' 일 것이다. 10대들이 중심이 된 네티즌들은 오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곧바로 미국 주요 언론들의 홈페이지를 공격해 서버를 일정 시간 다운시키는 등 사이버 행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작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10대 네티즌들은 각종 사이트에 사이버 프로파젠더 행동을 적극 벌였고, 7월 17일에는 의정부에 1천여 명이 결집해 미군의 살인 행위와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학생행동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오노 사건에서 촛불시위까지 10대들을 포함한 이른바 '신세대 반미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어떤 친구는 분명한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사이버 공격과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미국에 대한 이유 없는 반감, 혹은 힘세 세력에 대한 정서적 '재수없음'을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또 어떤 친구는 상식에 근거한 가치 판단에 따른 행동을 보인다. 어쨌든 오노 사건-월드컵-촛불시위로 이어지는 청년 세대들의 참여 의지는 정치 의식과 문화적 감수성의 결합에서 그 에너지를 얻지 않나 싶다.

문화의 힘은 다시 말해 감수성의 혁명적 에너지에서 나온다. 68년 프랑스 혁명의 동기도 청년 세대들의 자율성 확보 투쟁에서 비롯됐고, 이른바 60년대 신좌파 운동의 핵심은 문화와 정치를 결합해 자율적인 감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¹¹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세대론은 세대교체론이 아니다. 그것은 청년 세대가 내장하

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실천론이다. 청년 세대들의 집단적 행동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바꾸게 만들고, 새로운 사회적 에너지로 승화되고, 그리하여 이른바 W세대니, R세대니, 20/30세대니 하는 기표가 과잉 해석되는 과정 속에서 범하게 되는 동일성의 정치학은 사실 우리에게 식상하고 배타적인 세대교체론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들의 동일성의 정치가 차이의 정치, 타자의 정치를 통해 구성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급진화하는 운동이다.

나 역시 그런 세대를 편의상 '광장세대' 라고 했지만, 이 기표가 의미의 논리를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광장세대라는 기표는 일반적 기표나 보편적이고 싱거운 말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성을 상징한 기표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광장세대는 거리를 좋아하는 세대, 싸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세대라는 기표 그 자체에 대응하는 기의를 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표에 일 대 일로 대응하는 기의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의 세대는 사실 광장의 세대이기는커녕 밀실의 세대, 방문화의 세대, 탈정치의 세대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광장의 세대라는 기표는 좀더 특정한 정치성을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정치성은 다중의 정치이고, 소수자의 정치이며, 타자의 정치이다. 집단적 행동의 대표적인 사건들 안에서 차이와 타자의 계기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곧 '월드컵' '촛불시위' '대선' 이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서 광장세대의 주체 형성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구성됐는지를 읽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반미주의 비미주의 반미평화주의를 둘러싼 이견들, 노사모 386세대들의 민주주의적 희망, 문화혁명 세대인 IT세대들의 자유주의적 욕망, 그리고 엘리트주의의 혐오와 온라인을 끊임없이 넘나드는 N세대들의 비선형적 참여의 스펙트럼들. 물론 이런 차이의 정치나 타자의 정치를 가로지르고 교감하는 '분자적 선분' 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사건의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다. 그 분자적 선분은 바로 감수성의 정치이다. 결국 광장세대를 위한 문화운동은 감수성의 정치이며, 감각적 자율성의 극대화가

11 조지 카차이피카스, 이재원 외 옮김, 『신좌파의 상상력』, 이후, 1999, 78쪽 참조.

다. 차이와 타자를 연대하게 만드는 것이 감수성이라면, 우리는 이제부터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결론적으로 세대 문화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참여 정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대 문화는 문화와 정치가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문화적인 욕구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들을 함께 제안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문화적인 의미로 확대시키는 다양한 실천들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년 세대들의 참여 정치는 인터넷 환경을 적극 활용해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문화적 아젠다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 정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대문화 안에는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한다. 10대들에게는 10대들 나름의 사회참여적 아젠다가 존재하고,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자신들의 세대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차이들이 있다. 10대들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수준에 있는 청소년의 인권 노동 복지 교육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20대들은 청년 실업 대학교등교육 가족주의 양성평등 같은 사회적 현안들을 해결할 과제들을 안고 있고, 30대들은 민주화되는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사회적 생산의 주체 세력으로 부상하는 과정과 관련된 의제들을 안고 있다. 물론 청년 세대들이 한반도의 반전 평화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실천적인 과제들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실천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세대 문화는 세대 안의 문제와 세대 밖의 문제들을 가로질러 가면서, 문화와 정치의 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동연 sangyeun@hitel.net | 문화평론가. 상지대 영문과 겸임교수, 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주요 저서로 『대중문화 연구와 문화비평』(문화과학사 2002) 등이 있다.